

우리 주님의 기념식



우리 주님의 기념식

약 3,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거기에 머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지시는 명확했고, 그들이 따르기에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상징적으로 그 피를 바른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월절의 밤

그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고 그 피가 집 문설주에 바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이 일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 시대의 밤을 지내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이끌려 함께 모이고, 그 피 아래에서 어린 양을 먹고 그 희생의 공로를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시편 133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 보라,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시편 133:1).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 단위로 모여 거룩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피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며, 이는 모든 기독교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베드로전서 2:24)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19).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21).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특히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불구자, 나병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삶의 지위와 상관없이 랜섬의 혜택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일치의 중심이십니다.

모임의 필요성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우리는 성령에 의해 모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임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거룩함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우리를 모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름이나 규례, 제도나 단체에 모으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로만 모으십니다. 모이는 것은 "작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누가복음 12:32; 요한복음 14:23).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 뜻을 행하려 해서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한다.

이스라엘 온 가족이 각자의 집에 모여 있던 최초의 유월절 밤에, 그들은 불에 구워진 어린 양 주위에 모였습니다. 출애굽기 12:8,9의 지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 밤에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으라. 날것으로 먹지도 말고 물에 삶지도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먹으라.”

구운 어린 양은 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 반 동안 “불같은 시험”이라는 불의 작용에 자신을 내어주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불려 먹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누룩 제거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지침은 더 큰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도 먹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는 떡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악과 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룩이 순수함, 거룩함, 선함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함께 지켜야 했던 절기는 무교절이라 불렸다. 출애굽기 12:15이 이스라엘에게 지시한 대로: "너희는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분리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낡은 누룩을 깨끗이 치워 버리라"(고린도전서 5:7). 바울은 "낡은 누룩을 치워 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단호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 우리의 육신이 이런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인식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버리려 하나 악을 버리지 못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해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로마서 7:19-21). 그러나 우리는 죄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일주일 동안 행해야 했습니다. 일곱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버리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 말, 행동 속의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 상기시키듯,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요한일서 1:6).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한일서 1:8). 육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요한일서 1:9).

우리는 종종 방심한 틈을 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시 우리의 변호자를 찾아야 합니다. 요한이 상기시켜 주듯: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요한일서 2:1). 새롭게 형성되는 마음은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새 몸을 받을 때까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요한이 말하듯,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18). 요한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와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낡은 누룩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실천적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든 원칙적으로든 계속해서 악과 죄 가운데 머무는 자는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랜섬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거룩해야 하지만,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쓴 나물

유월절 어린 양은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다. 이는 구원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의 경험과 연관된 주님의 백성의 쓴 경험을 나타낸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딤후 2:12).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고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행 14:22).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다: "그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았으며 우리 평안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으니"(사 59:6). (사도행전 14:22).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바와 같습니다: "그가 우리 죄악을 위하여 상함을 받았으며, 우리 허물들을 위하여 상함을 받았도다. 우리의 평안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으며,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53:5).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막 제사에 대해 말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가자.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의 모욕을 지고 나가자." (히브리서 13:12,13).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쓴 잎채소와 함께 구운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갈라디아서 5:24).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몸을 훈련하려 애쓰고 있습니다(고린도전서 9:27).

이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마태복음 25:21).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먹었을 때, 그들은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집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지팡이를 손에 쥘 채 서둘러 먹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미래 왕국에서 상속자가 될 우리의 미래 운명으로 특징지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우리의 의존, 여정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듯이, 약속의 땅, 하늘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세상은 영웅과 위인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관습이 있지만, 그들의 죽음의 시기와 상황은 대개 어느 정도 잊혀진다. 아마도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업적이 그들이 살아 있는 시기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죽음은 그들의 생애를 끝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순서가 뒤바뀐다. 물론 그의 탄생은 매년 수백만 명이 기쁘게 기억하지만,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구체적인 지시는 그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탄생을 축하하라는 지침을 남기지 않았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당연히 필수적이었지만, 진정한 구원은 그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승의 첫 번째 강림의 주요 목적은 그의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감동적이었고, 그의 가르침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했으며, 그의 기적은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었고, 그의 예언은 시대의 주요 사건들을 정확히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없었다면, 그의 지상 사명은 대부분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성취는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스승의 봉사는 죽음을 통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며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유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그리고

오직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릴 특권을 얻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죽으라고 권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사역은 죽기까지 신실하게 희생의 일을 완수할 때 비로소 승리적으로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10

중대한 날들

예수님의 지상 생애 마지막 며칠은 중대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연이어 빠르게 펼쳐지는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대부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땅에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극적인 날들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왕이자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후 그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그에게 질문하며, 그의 재림과

세상의 끝이 임할 징조에 대해 물었다(마태복음 24:2,3). 그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다. 유다는 그를 악한 원수들의 손에 넘기기로 거래했다. 겿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 있었고, 이어진 배신, 대제사장 앞에서의 재판, 베드로의 부인,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의 재판, 채찍질, 조롱,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처형이 있었다. 이 사건들은 인류의 가장 고귀한 은인(恩人)의 마지막 날들을 장식한 일들이었다. 제자들에게 이 사건들은 처음에는 큰 희망을, 그다음에는 당혹감을, 마지막에는 쓰라린 실망을 안겨주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받으려 했던 거짓 예언자의 잘못된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으며, 당대의 '정당한' 통치자들이 마땅히 처리한 일이었다. 오직 예수만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셨고, 그 지식은 그가 시련을 견디고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능력에 기여했다.

경멸받는 스승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결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의 태도와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지만, 집단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역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부터 그에게 적대적이었으며, 사람들을 그에게 불리하게 만들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이 하신 은혜로운 말씀을 좋아했으며,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도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요한복음 7:46

유대인 대중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었다. 이러한 은혜는 치유받은 맹인의 말에 반영된 사고 과정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큰 축복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한때 눈이 멀었던 자신이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암시했다. (요한복음 9:25). 다른 많은 맹인들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졌고, 절름발이들이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악령에게 사로잡힌 많은 이들이 해방되었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아마도 이들 중 대부분은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이 자신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예수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쉽게 휘둘려 예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섭리적 돌보심이 그분을 덮고 계셨기에, 그분의 적들이 그분에 대한 악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이는 그분의 희생이 완성될 때가 되기까지 그러하셨다.

제자들의 확신

한편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자들은 점점 더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신하게 되었다. 처음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의 발치에 앉아 은혜로운 말씀의 정신과 깊이를 더욱 충만히 흡수할수록 그들의 확신은 굳어졌을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표현한 것도 당연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메시아이자 주님이신 분의 사역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끝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닥칠 일을 경고해 주셨을지도 모르는 그 말씀조차도 베드로에게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없으소서." (마태복음 16:22).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마태복음 16:25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을까! 성령으로 하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의 비밀에 이니셔티브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여전히 이상하게 들린다. 어떻게 생명을 잃음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지상의 생명을 희생으로 잃음, 즉 포기하심으로 이를 이루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분은 신성한 생명으로 보상받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자발적인 것이었지만, 일단 이 희생의 언약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이상, 그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생의 길을 충실히 완수하심으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희생으로 생명을 잃음으로써 예수님은 또한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구원의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탁월하게 중요하고 타락한 인간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신성한 섭리의 특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기념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주님의 죽음의 실용적이고 영감을 주는 측면들 자체가 그 사건을 기념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 점에서 그의 죽음은 신성한 사랑의 원리가 실천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에 이끌려 산다면 사랑이 우리 삶에서 행해야 하고 행할 일을 보여주는 모범이다.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려면, 다른 이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게 하신 바로 그 사랑에 이끌려 우리도 생명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죽음의 더 중요한 측면, 즉 인류의 구속자로서의 랜섬적 의미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왕으로 인정받다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이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분의 친구 중 한 명에게 연락하여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구했고, 예수님은 그 위에 앉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리의 행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그러한 자기 계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승의 죽음에 관한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던 의문은 이제,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잊혀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었다. 예수는 왕이셨고, 백성들이 이를 알고 그를 왕으로 찬양할 기회를 가져야 할 때였다. 이제 그가 그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잡았다. 제자들은 분명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임박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는 그가 왕처럼 성에 입성하신 것과 잘 어울리는 행동이었다.

제자들의 기쁨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은 성전을 지은 아름다운 돌들을 예수님께 지적하며 자신들의 영광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새 통치자가 곧 이 웅장한 건물을 차지할 것이라는 환상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순식간에 식어버렸다. 마태복음 24:2

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그러나 분명히 이 사건은 제자들이 그들의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관한 계획에 대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후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두 번째 임재의 시기와 증거들, 그리고 그분의 왕국 수립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왕국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가 이전에 말씀하신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먼 나라로 가서 왕국을 받고 돌아온 귀족의 비유 같은

것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주님의 재림[그리스어 '파루시아' - '임재']과 세상[그리스어 '아이온' - '시대']의 끝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3). 이 질문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시 그들과 떨어져 계셨다가 나중에 왕국을 세우러 돌아오실 것임을 적어도 희미하게나마 감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스승의 긴 답변은 시대의 종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 정치 체제의 붕괴로 시작되는 시대 전반의 일반적인 상황들에 관한 놀라운 예언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어 그들 앞에, 그리고 그들의 스승 앞에 임박한 사건들을 준비시켰다고 가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았거나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10-14

다락방

제자들의 마음은 이쯤 되면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된 다락방에 모였을 때, 마치 공기에 다가올 비극의 예감이 스며든 듯했다. 예수님은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리셨다. 그러자 간절하고 애절한 질문이 이어졌다. "선생님, 제가 그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6:25). 이 상황에서 스승의 고귀한 품격이 드러난다. 물론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자임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친구"[그리스어, "동료"]라 부르셨다. 마태복음 26:50

제자들은 스승의 진정한 정신과 관점에 대해 배울 것이 많았다. 그들의 시각은 전적으로 인간적이었고, 대부분 자기 이익에 치우쳐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할 때 자신들에게 돌아갈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이를 생각하며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서로 다투고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께 겸손과 섬김에 대한 큰 열정을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를 주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그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모든 이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그 다음에는 칼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이상한 질문이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몇 자루의 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다. 그들 중에 칼 두 자루가 있다는 확답을 듣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하셨다(누가복음 22:38). 아마도 이 질문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것만큼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를 평화의 왕이자 평화주의자로 생각하도록 배웠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러하셨다. 후에 밝혀졌듯이, 그는 자신의 방어를 위해 그 칼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칼을 지니고 있는지 물으셨을까? 우리는 이제 그가 체포에 저항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음을 안다. 베드로는 두 칼 중 하나를 지니고 있었고, 후에 스승의 체포를 막으려 그 칼을 사용하려 했다. 이는 예수님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자진해서 내어주신다는 것을 증명할 놀라운 기회를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무모하게 칼을 휘둘러

베어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 곧 고통받고 죽으려 하셨음에도, 그 누구도 자신 때문에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빵과 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인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 다락방에 계셨습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그 사건 많은 밤을 매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첫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집들의 문설주와 상단에 뿌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유월절을 먹었으며, 이집트의 만아들들은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1-14

하나님은 백성들이 첫 유월절과 함께 이루어진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년 이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다 .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해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요한복음 1:29)의 훨씬 더 중대한 희생을 미리 가리켰다는 점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셨으며,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그 실체가 될

모형적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마지막으로 기념하셨다.

유월절 잔치가 끝날 무렵,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새로운 예식을 제정하셨다. 빵은 찢긴 자신의 몸을, 포도나무 열매는 흘리신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설명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먹으라고 명하시며, 계속해서 이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증거하리라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1:23-26).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예식은 단순했습니다. 단지 잔을 마시고 누룩 없는 떡을 떼어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월절 만찬을 새로운 형태로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곧 세상의 구세주의 희생 제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빵과 잔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자신들이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를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 선고를 무효화할 방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분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다스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통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추종자들에게 주어진 더 큰 특권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찢긴 몸과 흘린 피로 제공된 생명의 축복을 받으며, 또한 그의 희생과 섬김의 발자취를 따를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얼마나 복된 교제인가! 고린도전서 10:16,17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나갔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을 제정하신 후 제자들은 즉시 다락방을 떠나 겟세마네로 향했습니다. 스승의 마음은 너무나 가득 차 있었고 제자들은 더 이상 머물며 이야기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천히 성을 벗어나 동산으로 걸어가는 동안 몇 마디 대화가 오갔다. 그때 베드로가 스승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다른 모든 이가 그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을 온

우리 주님의 기념식

마음으로 진심으로 했으며, 이는 그가 나중에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겻세마네 동산에 들어서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그분은 이들이 자신과 함께 기도할 마음가짐이 있을 거라 생각하셨으나, 그들은 그럴 수 없었다.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기도하셨다.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아버지께 들려졌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덧붙이셨다. (마태복음 26:39).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 한 순간이라도 희생의 언약을 어기려는 욕망을 품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죽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 뜻을 이루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지금껏 자신의 죽음이 이토록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즉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고발당할 것임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셨을 것이다. 오직 선한 일만 행하시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분에게 이건 가슴 아픈 고발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속자로 죽는 건 기쁘셨지만, 이런 다른 고통까지도 아버지의

뜻이셨을까? 그렇습니다. 그걸 확신하신 예수님은 평온하고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셨고 그 헌신으로 인해 들으심을 받았다고 전해 듣습니다(히브리서 5:7).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희생의 언약에 들어가실 때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걸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시편 50:5). 그가 신실하지 않았다면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염려하게 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었으며, 바로 이 때문에 그분은 위로받으셨고, 아버지가 여전히 그분을 "기뻐하시며" 계심을 확신하셨습니다(마태복음 3:17; 요한복음 12:27,32). 이 확신으로 축복받은 예수님은 이후로 자신에게 부당하게 쏟아진 모든 치욕과 수치를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에 관해 말하자면, 주님은 지상 생애의 마지막 시간 동안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 이는 제자들이 동정심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분과 가장 가까운 듯 보였고, 베드로는 분명히 도우려는 의지를 증명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스승이 겪고 계신

시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팔이 실패한 곳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탱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항상 가까이 계셔서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심을 확신하셨기에, 베드로에게 원한다면 열두 군단의 천사들을 보호로 보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53

하나님의 아들

겟세마네를 떠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왕 중의 왕이 되실 그분을 체포하러 도시에서 나온 폭도들을 만났다. 스승은 스스로 순순히 넘어가시며 폭도들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이 찾던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이 있었고, 베드로가 스승을 원수들로부터 구하려는 용감하지만 어리석은 시도가 있었으며, 그 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심문을 받기 위해 재판정으로 급히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께 물으되 "네가 복되신 이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하니라 (마태복음 26:57,63; 마가복음 14:6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말한

대로니라" 하시니 이는 대제사장의 눈에 이 대답이 그로 하여금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마태복음 26:64). 사역 초기부터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마태복음 4:5,6).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는 사탄이 제안한 것처럼 어떤 화려한 증거로도 제거될 수 있는 의문은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아들이심을 확증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17

대제사장이 주님의 지상 사역 마지막 밤에 이 질문을 다시 제기하기 몇 달 전, 예수님은 변모산에서 아들의 신분에 대한 비슷한 확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를 들으라." (마태복음 17:5). (마태복음 17:5).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백성을 시련에 대비시키시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셨으며, 이 새로운

확신이 후에 질투와 편견에 찬 대제사장 앞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겠는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의심이 없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진리를 확언하셨습니다. 진리를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할 때 굳건히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본보기를 남기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마침내 스승님은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카이사르의 대리인으로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종교적 고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스승님이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졌을 것이며, 그 이유로 반드시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종교적 편견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타인의 미덕과 죄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빌라도는 스승에 대한 종교적 편견이

없었기에, 조사 끝에 그에게 제기된 고발이 사실 근거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가 보기에, 설령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했더라도 그것은 단지 종교적 개념일 뿐, 실질적으로 그를 로마 왕좌의 경쟁자로 만들지 못했다. 따라서 빌라도는 스승을 풀어주고자 했으나, 분노에 찬 편견에 눈이 먼 군중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왕이라 말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셨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는 답변을 로마의 대표자에게 하셨다. (요한복음 18:37). 그리고 그 왕이 얼마나 특별한 왕이셨는가! 그분은 자신을 위해 싸워 줄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3년 반의 시간이 있었으나, 군대를 만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충성스러운 제자 베드로조차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쓰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 대신, 이 왕 중의 왕은 자신의 미래 백성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죽어가고 계셨다. 이런 죽음이 기념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그들은 이 사랑의 왕에게 가시관을 씌웠다. 그에게 침을 뱉고 조롱했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했고,

결국 그 위에 못박아 죽게 했다. 빌라도의 한 지시에 따라 그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누가복음 23:38). 빌라도는 이 탁월한 인물이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음을 세상이 알기를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는 세상의 구세주로서 죽어가고 계셨다. 그에게 죽음으로 이르게 한 상황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가까이 서 있던 자들이 소리쳤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40). 이는 사탄이 3년여 전에 주님께 던졌던 것과 동일한 도전이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에 매달린 지금도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자신을 지키도록 허락하는 것만큼이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비웃으며 말하였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더군." (마태복음 27:41,42). 아,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써 그들과 온 땅의 모든 가족에게 구원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깨닫지 못했는가! 영생을 얻는 모든 이가 배워야 할 위대한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을 이렇게 상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고 우리 필요의 온전한 정도—그분의 죽음을 통해 채워지는 그 필요—를 깨닫기 위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를 완전히 대신하시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잠시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34). 그러나 주님께서 마침내 숨을 거두실 때, 그분은 온전한 확신으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고, 이 땅에서의 사역은 죽음 속에서 승리로 완성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46). 주님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도 희생하는 특권을 누린다. (로마서 12:1).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음을 기념할 때, 우리는 또한 그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한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제자들이 “그의 죽음의 모양에 함께 심김”을 받으며 매일 드리는 희생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로마서 6:5). 그러나 이것이 복음 시대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운영되어 온 방식이다.

매년 우리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 해가 진 후 전 세계에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곧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영원한 어린 양”(계시록 13:8)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새롭게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8). 동시에 그들은 구속주의 발자취를 더욱 충실히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재헌신하며, 그분과 함께 살고 다스리기 위해 희생과 봉사의 특권을 기뻐할 것입니다. 로마서 6:5,8; 8:17

그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

그 소식은 방송할 라디오나 텔레비전 네트워크도 없었고, 신문이나 전자 매체도 없었기에,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보다 천오백 년 이상 전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실—그날 밤 이집트 모든 가정의 맏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할 수 없었다. 그런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그 땅의 모든 가정은 각자의 슬픔에 빠져 있었기에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죽음의 천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 오랜 세월 전 그 밤에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그 땅의 가장 낮은 이집트인의 맏아들까지 모두 쓰러졌기 때문이다.

이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의미는 해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맏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운명의 밤에 땅을 휩쓴 멸망의 손길로부터 이스라엘의 맏아들들 이 구원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그 밤은 구원의 밤이었습니다—맏아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밤이자, 다음 날 온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니산월 열네째 날, 그 이후 매년 행해져 온 대로, 온 땅에 흩어진 주님의 백성은 '맏아들의 교회'라는 반형적 존재로서 구원의 소망을 특별한 방식으로 기억하며, 그 영광스러운 새 왕국 날 아침부터 시작될 인류 세계의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전망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2:23

유월절 어린 양

이것이 현재의 진리를 기뻐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기념 만찬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고의 배경이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그 최초의 유월절 밤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시,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지시를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히브리인 각 가정은 그 피의 구원 능력을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집 문설주와 상단에 그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이를 행하지 않은 가정은 이집트인들과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 상징적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체에 구원의 힘이 내재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예표로 보여주셨음을 압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복음 1:29)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요한복음 1:29). 죽음의 독침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상처를 입히기 시작했으며, 이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길은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도, 황소나 염소의 피도 아닌, 아버지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대신하여 완전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말입니다. 히브리서 9:11,12

우리 주님의 기념

요한이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지목한 후 3년 넘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며 수고하고 섬기셨습니다. 이제 그의 희생이 완성될 때가 왔으니,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는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나기로 하셨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매년 지키는 유월절 잔치()를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 잔치는 이집트에서의 그 첫 유월절 밤의 상황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26:17-20

이 일을 마치신 예수께서는 빵과 포도나무 열매를 취하시어 새로운 규례를 제정하셨다. 이는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두 가지 규례 중 하나로서, 다른 하나는 물 세례였으나 둘 다 단지 상징에 불과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권하시며, 그것이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고 설명하셨다. 마찬가지로 잔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것이 자신의 피를 상징하며, 그 피가 그들을 위해 흘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6:26-28

이는 유월절의 새로운 형태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 매년 거행되던 유월절 기념은 그날 밤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과 그의 피 흘림을 가리키는 유형(預型) 혹은 그림자였으며, 이제 그가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려 하니 유월절 의식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그의 죽음을 기념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들이 "장자의 교회"로서 그와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빵'과 '잔'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긴 몸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는, 곧 죽기까지 그 영혼을 쏟아 부으셨다는

복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매년 기념식 때, 그리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 생각은 감사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구속주로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떤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성한 계획에 따라 그분의 희생된 생명의 공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념 예식의 상징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수용은 우리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뜻이,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희생으로 내려놓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찬

이 생각에 따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에 대한 공동체적 교제와 참여, 즉 성찬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생각이지만,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데 큰 부지런함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초 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고 다스리는 특권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17,18

올해 우리가 기념의 상징을 취할 때 이 생각들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 성찬이 우리와 인류 세계를 위해 상징하는 위대한 구원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만아들 계급의 일원으로서 피가 우리에게 베푸는 보호를 기뻐하며, 유월절 밤 이후에 올 그 위대한 날—복음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에 참여할 우리의 몫을 기뻐합시다. 얼마나 복된 전망입니까!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그분에게 쏟아진 죄인들의 모순된 비난, 조롱, 채찍질, 십자가의 잔혹함—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께 충실하겠다는 더욱 굳건한 결심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성경이 선언하듯, 우리는 얼굴을 돌이켜 "돌처럼 굳게" 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희생과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우실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사야 50:7

우리 모두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헌신의
서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썩어질 육체와 그
욕망을 희생하고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매년 성찬식이 우리를 주님께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 온 인류에게 의미할 모든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